

# 『요루노네자메(夜の寢覺)』의 산문적 전개와 와카(和歌)

—『이즈미시키부슈(和泉式部集)』 「관신론명가군(觀身論命歌群)」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신재인\*

---

## 目次

---

- I. 머리말
  - II. 『요루노네자메』의 산문성
  - III. 『이즈미시키부슈(和泉式部集)』 「관신론명가군(觀身論命歌群)」과의 관계
  - IV. 온나키미(女君)의 의식의 흐름과 이즈미시키부 와카의 관련성
  - V. 맺음말
- 

## I. 머리말

『요루노네자메(夜の寢覺, 1045-1068년 경 성립?, 이하 요루노네자메라 약칭함)』의 여주인공 네자메노온나키미(寢覺の女君, 이하 온나키미라 약칭함)의 조형은 모노가타리사 속에서 그 위치를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로서는 우선 모노가타리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반과 말미의 결권(欠卷) 으로 인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인물 조형을 파악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이다. 두번째 이유로 『요루노네자메』 특유의 전개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작품은 주인공— 여주인공 —의 독특한 심리 전개를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또한 온나키미의 조형 및 본 작품의 헤이안 모노가타리사 속에서의 위상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세번째 이유는 본 작품이 헤이안 시대의 타 모노가타리들과 달리 와카(和歌)보다는 산문 위주의 전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 든 두번째 이유와도 관계 깊은 점인데, 온나키미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와카보다는 산문이 효과적이라는 작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모노가타리사 속에서 와카와 모노가타리 사이의 뿔레야 뿔 수 없는 상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마치 와카를 초월하기라도 한 듯 산문 위주로 내용을 서술해 나가는 본 작품의 전개법은 대단히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요루노네자메』의 이러한 특징과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루노네자메』의 내면 묘사와 산문 위주의 작품 전개 및 서술 속에서 헤이안(平安) 여류 가인(歌人) 이즈미시키부(和泉式部, 970(?)~?)의 관련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목되는 점은 『이즈미시키부슈(和泉式部集)』(鎌倉時代 이전 성립) 중 「관신론명가군(觀身論命歌群)」의 전개법이 여주인공의 내면 서술

---

\* 고려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전공

1) 永井和子「中の君(夜の寢覺)——非現實と現實のあいだ」(『國文學』1993년 10월)

및 모노가타리의 전개 방법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하는 점이다.

본 모노가타리에 관해서는 온나키미의 의식의 흐름이 스토리의 전개뿐만 아니라 일종의 미의식처럼 작품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sup>2)</sup>. 그러나 이를 헤이안(平安) 시대 여류 문학의 정신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드물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요루노네자메』의 산문적 내면 서술의 특징과 이즈미시키키부의 창작 기법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네자메노온나키미의 의식의 흐름의 방법과 작품의 전개 양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울러서 헤이안 모노가타리사 속에서의 본 작품의 위상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 Ⅱ. 『요루노네자메』의 산문성

먼저 『요루노네자메』 속의 와카의 위상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루노네자메』는 앞서 언급했듯 모노가타리사에서는 드물게 와카를 초월한 듯한 산문 위주의 작품 세계로 인하여 항상 논의되고 있는 모노가타리이기 때문이다.

헤이안 시대의 여류 산문 문학을 남성 작가의 그것과 구분짓는 것은 그녀들의 와카(和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루노네자메』는 가어(歌語)「네자메(寢ざめ)」를 제재로 하는 모노가타리의 제목과 내용에 비해 정작 모노가타리의 서술법 자체는 대단히 산문적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장면에 주목해 보자. 다음은 다이오노미야(大皇の宮)가 평소 온나키미를 흠모해 오던 미카도(帝)를 이용하여 온나키미를 유인한 후 그곳으로 미카도를 불러들이는 장면이다. 이 「미카도 침입 사건(帝闖入事件)」 이후 온나키미와 오토코키미는 질투와 의심으로 괴로워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탐색하게 된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심리는 철저히 산문과 지노분(地の文)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가)「내 억울한 사연을 어찌 들으셨을까. 그럴리 없다고 생각지 않으실텐데 내가 경박하고 싫은 여자라고 질리시고서 마치 왕께 지지 않으시겠다는 듯이 나와의 사이를 되돌리려 해도 흥한 일인 것들」등등 생각해 보아도 위로가 될 리 없고, 소매는 눈물로 더욱 젖어드는 괴로운 기색이시다.

(밑줄 인용자)

「身の濡衣を、いかが聞きやしたまひつらむな。よにあらじとはおほさじものを。あはつけう、憂かりけるものに思ひ果てられて、負けじばかりに、野中の清水あらためても、あいなかるべく」など、思ひ解きゆくには、心の慰むべきかたなく、濡らし添へたる袖の氣色、心苦しげなり。

(권 3, p.312, 밑줄 인용자)<sup>3)</sup>

2) 여주인공의 시련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그녀의 심리 묘사 서술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온 종래의 논(野口元大「『夜の寢覺』の主題と構造—「夜の寢覺たゆるよなくとぞ」—」(『文學』1967년 4·5월), 永井和子「『ねざめ』の構造」·「寢覺物語の主題とその發展」『寢覺物語の研究』所收)과, 여주인공이 시점 인물이 되고 있는 『요루노네자메』의 심리 소설적인 면을 평가하면서도 모노가타리가 사건이 아닌 미의식을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모노가타리로서의 본래의 성격을 망각했다는 입장(三谷邦明「後期物語の方法 <理念>と<語り>あるいは源氏物語の呪詛」『日本文學講座 4』(大修館書店, 1987)), 여주인공의 지나친 심리 추구가 자폐자적인 면을 보인다(神田龍身「『夜の寢覺』論—自閉者のモノローグ—」(『文芸と批評』1982년7월))는 입장 등이다.

(나)「어젯밤도 (왕을) 이렇게 봐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니, 오랜 세월 지나왔던 일들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어젯밤) 내 듣고 생각했던 것, 확인했던 왕의 모습 등등을 일일이 말씀하시니, 「(그분이 그 일을) 들으셨을까」하고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생각 못 하겠는 것을, 채 하루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먼저 이 소문을 흘리신 다이오노미야의 본심이라니 이렇게 마음먹고 계획하신 거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역시 특이하여 진저리가 쳐지는데, 「아니, 미야의 이런 마음도 모두 그 분 때문인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물며 『(내가 왕께) 허락했다』고 들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하고 몹시도 무서웠지만, (그 분이) 이렇게 들어 오신 것이 두려워 누군가를 부른다면 그것도 안될 일이고 이렇게저렇게 대답할 방법도 생각나지 않아, 그저 얼굴을 파묻고 누워 계신 그 모습이 전보다 더 귀엽고 아름다우신데 그게 안스러워서 감히 (어젯밤의 일을) 묻지도 못하고 한편으로 (온나키미를) 위로 하는 사이에 배웅하는 사람들이 왔다.

(괄호 부분 인용자 보충, 밑줄 인용자)

「昨夜も、かくてぞご覽ぜられけむ」と思ふに、年月ごろのことどもは置かれ、聞きつるさま、我が思ひ暮らしつる心のうち、上の御氣色のいちじるかりつるなど、かき盡くしのたまふに、「聞きやつけたまはむ」のあらましごとだに、よろづも忘れておぼえつるに、日をだに經ず、まつ漏らし聞かせたまひつらむ宮の御心の、かくおほし構ふるとは心得ながら、なほめづらかに、憂く、疎ましきに、「いでや、かの御心構へも、この人によるぞかし」と、「まいて、『うちとけてなむ』と聞きつけられたてまつりては、いかなることか出で來む」と、いみじく恐ろしけれど、かくて入りおはしたるを、おびえ、人呼びなどせむも、いとけしからざれば、ともかくも答へすべきかたもおぼえねば、ただうち泣きて、顔を引入れて臥したまへるけはひ、えも言はずらうたく、うつくしきはひ、昔にこよなくまさらにける心地して、めづらしくあはれなるに、えも問ひやらず、かつは慰むるほどにぞ、御送りの人々、來たる。

(권3, p.312, 밑줄 인용자)

위 본문은 본 작품의 독특한 문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표적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가)는 온나키미가 왕과 헤어진 후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상념에 젖어있는 부분이다. 오토코키미가 자신의 억울한 소문을 들을지 두려워하던 것이다. (나)는 오토코키미의 심경과 온나키미의 심경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즉, 오토코키미가 온나키미의 처소를 방문하자 온나키미는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런 온나키미의 모습을 바라보는 오토코키미의 착잡한 심경을 묘사하고 있다. 철저히 심리 묘사와 독백으로 이루어진 위 본문 속에서 남녀 주인공은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해에 오해를 거듭해 가고 있다. 즉 온나키미의 경우는 오토코키미가 자신의 결백함을 모르고 왕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에 비해 정작 오토코키미는 온나키미가 전에 없이 아름답고 안스럽다 느끼며 측은한 심정으로 위로하고 있다. 모노가타리는 엇갈리는 남녀 주인공의 심경을 묘사하면서 심리 묘사와 지노분(地の文)을 이용하여 와카를 배제하고 있다.

모노가타리는 미카도라고 하는 중대한 인물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을 통해 남녀 주인공이 깊은 애정을 새롭게 확인하는 전환의 계기를 맞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 인물의 서로에 대한 오해도 증폭하게 된다. 두 인물의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지 않는 위 장면 속에서 작가는 와카의 증답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개인의 독백도 와카를 초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3) 이하 『요루노네자메(夜の寢覺)』의 본문 인용은 『夜の寢覺』(鈴木一雄 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28, 小學館, 1996)에 의한다.

위 장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본 모노가타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성립이라고 하는 작품의 서술적 특성상 증답가의 감소 및 심리 묘사의 극대화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와카를 이용한 서정적인 장면과 독자와의 직접적인 공감대 형성도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와카의 중요 제재인 자연 묘사까지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된 것이다<sup>4)</sup>.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요루노네자메』는 여류 가인 오노노코마치(小野小町)에서 『이세슈(伊勢集)』, 『카게로닛키(蜻蛉日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로 이어지는<sup>5)</sup> 헤이안 여류 문학의 와카적 전통과는 다른 산문적 성향으로 인해 거듭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루노네자메』는 「와카를 거부한다」<sup>6)</sup>고 평가받을 정도로 산문적 심리 묘사를 해 나가면서 『요루노네자메』만의 와카적 전통을 어떻게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본 모노가타리의 독특한 산문성과 와카의 쇠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이유와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일까? 『요루노네자메』속에서 가인(歌人) 이즈미시키부의 와카적 세계와 문학 정신을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즈미시키부와 본 모노가타리의 표현의 유사 관계 및 온나키미의 의식의 흐름의 방법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Ⅲ. 『이즈미시키부슈』 「관신론명가군(觀身論命歌群)」과의 관계

현존 『요루노네자메』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주인공 네자메노온나키미가 출가에 대한 미련과 출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괴로워 하는 심경이 다음과 같은 긴 내면 서술을 통해 드러나 있다.

① 이렇게 있어도 살아 있다고도 느껴지지 않으니. 어린 자식들을 버릴 수 없고 나머지 모른 척 하면 어찌하나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돌보며 연명해 왔거늘. ② 내심 속세에 머물 생각이 없다는 것도 마음 편한 것이로구나. 내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원망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니 「현세는 이렇게. 이렇듯 무수한 인연들로 끝나 버리겠거니. ③ 후세라도 어떻게 하고 생각해 보지만 과연 주저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도록 인연만 늘어가니 괴롭기 그지없네 」

(밑줄 인용자)

① かくてあるも、あるとおぼえず。幼き人々の數々見捨てがたく、これかれの御扱ひを、我さへ知らずなりなば、いかかはと思ふばかりに、長らふるにこそあれ。② まことは、世のつねにとまる心のなきも、心やすきわざなりけり。この世にしむ心のあらましかば、恨めしき節なくはあるまじき」などおぼすに、「この世は、さはれや。かばかりにて、飽かぬこと多かる契りにて、やみもしぬべし。③ 後の世をだに、いかでと思ふを、さすがにすすがしく思ひたつべくもあらぬ絆がちになりまさるこそ、

4) 乾澄子「夜の寢覺 - 作中詠歌の行方-」『物語の方法 - 語りの意味論-』(世界思想社, 1992), pp.104-111

5) 秋山虔「女流文學の精神と源流」『源氏物語の世界—その方法と達成—』(東京大學出版界, 1964), 초출 『解釋と鑑賞』1963년1월, pp.49-57

6) 「『요루노네자메』의 소재나 문장이 아무리 와카적이라고 해도 내용은 와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마침내는 와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永井和子「題名をめぐって」『寢覺物語の研究』(笠間書院, 1968, 재판, 1990), p.97.)

心憂けれ」

(권5, pp.545~546, 밑줄 인용자)

위 서술은 온나키미의 의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 중 하나이다. 먼저 이 단을 통하여 온나키미가 스스로 현세에 대해 집착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②에는 만약 자신에게 현실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면 남자 주인공에 대해 「원망스러운 부분(恨めしき節)」이 없었다고 할 수 없었음을 긍정하는 마음과 그러한 심경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즉 다행히도 자신은 현세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코키미를 원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현실과 가상을 대비하는 반실가상(反實假想)의 용법으로 온나키미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세와 후세를 구분짓는 이 가정법에는 현실이 아닌 가상을 통해서만 현실에 대한 각오를 결정할 수 있는 온나키미의 비애감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동시에 그녀의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저버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①의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다(かくてあるも、あるともおぼえず)」에는 ②와 ③을 총괄하는 절망이 표현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현실에 대한 강한 집착과 절망으로 인한 비애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주인공의 내면을 이즈미시키부의 다음 와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ㄱ) 만나던 때에는 꿈까지 믿었건만 허무하여라 숨쉬는 것만으로 지내는 게로구나  
 みる程は夢もたのまるはかなきはあるをあるとてすすなりけり  
 (『이즈미시키부슈(和泉式部集)』(268), 인용은『新編國歌大觀』에 의함, 밑줄 인용자)

(ㄴ) 되돌아보니 옛날의 죄를 알아 역시 눈 앞의 소매는 젖는구나  
 觀ずればむかしの罪を知るからになほめのまへに袖はぬれけり  
 (270, 밑줄 인용자)

(ㄷ) 스미요시의 소나무에 물을까 세상 살면서 이토록 고민하던 때가 있었느냐고  
 すみのえのまつにとはばやよにふればかかる物おもふ折やありしも  
 (271, 밑줄 인용자)

(ㄹ) 평소보다도 아 세상 모든 것이 슬프기도 해라 내 삶의 끝이라면 죽어야 할 것이니  
 れいよりもうたてものこそ悲しけれわが世のはてになりやしぬらん  
 (272, 밑줄 인용자)

이 와카들은 『이즈미시키부슈(和泉式部集)』 중 『와칸로에이슈(和漢朗詠集)』 「무쵸(無常)」편에 실려 있는 「내 자신을 돌아 보니 튀어 나온 절벽에 뿌리가 매달려 있는 풀 身を觀ずれば岸の額に根を離れたる草(觀身岸額離根草、論命江頭不繫船)」을 코토바가키(詞書)로 하는 43부의 연작 (『이즈미시키부슈』268~310, 觀身論命歌群) 중의 한 수 이다. 이 연작 중 위에 든 와카는 여주인공의 내면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고 싶은 것들이다.

자료 (ㄱ)의 시키부의 「살아 있음을 살아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감각, 즉 살아 있으나 살아 있다

고 실감할 수 없고 결국 허무한 존재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존재의 실체에 대한 감각은 『요루노네자메』의 온나키미의 ①의 감각과 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ㄴ)에서 옛날의 실책(昔の罪)을 반추함으로써 「번뇌에 빠져 있는(物思ふ)(ㄷ)」 현재의 슬픔을 재확인하고 「내 삶의 끝(わが世の果て)(ㄷ)」을 실감하고 있는 것에서도 『요루노네자메』의 온나키미와 이즈미시키부의 공통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작가의 표현의 유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 IV. 온나키미(女君)의 의식의 흐름과 이즈미시키부 와카의 관련성

앞의 절에서 확인했듯 네자메노온나키미와 이즈미시키부의 와카 사이의 유사한 표현 관계를 볼 때, 『요루노네자메』의 작품 전개에 관해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온나키미가 현재의 불행을 과거의 불행했던 시기에 비추어 봄으로써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엄청난 불행과 비교한다면 과거는 그나마 편안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먼저 제 3부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양대 사건, 즉 왕의 침입 사건(帝闖入事件)과 생령 사건(生靈事件) 하에서의 여주인공의 내면 서술 방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중간 결권 부분을 거쳐 재등장한 현존본의 온나키미는 스스로의 「고달픈 인생(憂き身)」의 역정을 돌아보며 현재의 불행을 확인하는 자기 성찰의 면모가 확연하다. 이러한 현상은 양대 사건 후 특히 현저한데 왕의 침입 사건 후 다음과 같은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보기 흉하며 털끝만큼도 훌륭하다 할 바 없는 신세구나. 행복이란 것은 마음이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생각대로야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저 내 신세야말로 생각한 바와 달리 예전부터 못되고 경박하며 가벼운 여자로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로 끝나버릴 것만 같으니.  
(밑줄 인용자)

昔より今に、目やすからず、つゆばかり心にくき思ひやりなくのみある、身の有様かな。…、幸ひなどいふことこそ、心およばぬかたにて、思はずにもあらめ、ただ我が身の有様ばかりだに、思ひしにあらず、昔よりけしからず、あはつけく、輕々しう、憂きものに、人に言ひそしらるる事にて、やみぬべかめるよ。  
(권4, p.323, 밑줄 인용자)

위에서는 현재의 자신의 불운에 대한 성찰이 현재의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불행의 과정을 전부 풀어 안는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심경은 다음의 것으로 진전되어 간다.

(언니 오오이키미와) 둘이서 텃마루 끝에 나오셨는데 이름처럼 유명한 새벽 하늘엔 안개가 자욱하고 이제 막 꽃망울이 열리기 시작한 나뭇가지 끝이 더할나위 없는데 이전에 니시아마에서 예전의 처지를 그리워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도 좋지는 않았었는데 지나 버렸기 때문인지 정말이지 요즘같은 심정은 들지 않았건만」하고 생각에 잠겨 비교해 보는데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지나온 어떤 시절

도 한숨짓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만 그 시절이 이 새벽녘 한없이 그리워졌다.

새벽 안개 속 한스러운 이 몸은 해매이면서 몇 번이나 봄꽃을 바라 보았던 걸까

二所ながら、端にみざり出でたまひつれば、名に流れたる曙の空霞みわたり、今開けそむる花の木末ども、似るものなきほどなるに、いにしへ、西山にて、「見しながらなる」とながめしほどの嘆かしき、身の有様、「その折も、よろしうはあらざりしかど、過ぎぬるとなればにや、いとこのごろの心地はせざりしをや」と、うちおほしくらぶるに、え忍ばれたまはず、なにの折も、世とともに嘆かしかりつる年ごろの、この曙は戀しきことぞ、返るらむ波よりもしげきや。

朝ぼらけ憂き身はかすみにまがひつついくたび春の花を見つらむ

(권4, p.347, 밑줄 인용자)

위의 묘사 속에서는 결권 부분의 내용으로 보이는 아버지 뉴도(入道)가 자신을 히로사와(廣澤)에 거두어 보살피던 때의 상황이 현재의 가혹한 현실과 비교되어 서술되어 있다. 즉, 현재와 비교하면 당시는 그나마 견디기 쉬웠다고 회상하는 것인데 현재의 경치와 자신의 처지 위에 과거의 영상과 기억이 겹쳐지고 있다. 봄날 현재의 새벽녘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 과거의 히로사와의 경치를 연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회상하고 있는 이 과거의 시기는 남자 주인공인 오토코키미와의 관계로 인해 언니 오오이키미(大君)와의 불화가 절정에 이르러 있던 때였다. 온나키미는 오오이키미 측의 냉대로 인해 히로사와로 몸을 피하고 그곳에서 봄날의 경치를 바라보며 언니와 다정히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의 불행으로 인해 불행했던 과거의 일을 상대적으로 덜 불행했던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방법으로 이후에도 온나키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인식법이다.

여주인공이 현재의 불행으로 인해 과거의 불행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불행의 정도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다음과 같이 생령 사건 이후에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풍경을 통한 과거 연상과 와카<sup>7)</sup>로 매듭짓는 비슷한 서술법을 확인할 수 있다.

두견새 우는 오월의 짧은 밤도 지새우기 힘들어 살짝 뒷마루 가까이 나와 꿀꽃 가지를 보니 더더욱 옛날 그분이 그리워져 ... 그때야말로 다소라도 내 처지도 남보기 좋았었네.

鳴くや五月の短夜も明かしかねつつ、すこし端近くて、花橋の枝も、いとど昔戀しきつまとなりまさりつつ、...その折ばかりこそ、いささか身の人聞き目やすきほどはありけり。

(권4, p.390)

이들 두 장면에는 카와조에후사에(河添房江)씨가 지적하듯 「시간적인 유리(流離)의 감각을 견디지 못하고 와카를 읊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이는 온나키미가 현재를 대상화함으로써 가혹한 현실을 헤쳐 가기 위하여 행하는 중요한 의식의 흐름 중 하나인

7) 이렇게 지나간 날들만 그렇다면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 가리(今のごと過ぎにしかたの戀しくはながらへましやかかる憂き世に (권 4, p.391))

8) 河添房江「夜の寢覺と話型——貴種流離の行方——」(『日本文學』1986년5월)

것이다.

그런데, 온나키미가 이처럼 현재의 불행한 처지로 인해 「시간적인 유리(流離)의 감각」을 이용하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불행을 반추하는 경향은, 앞서 인용했던 이즈미시키부의 (二)「이 세상 살아 오며 이렇게도 번뇌하던 적이 있었던가(世に経ればかかる物思ふ折やありし)」나 (三)「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슬프구나(れいよりもうたてもこそ悲しけれ)」라고 하는 감각에서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은 온나키미의 정신적 방황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변화되어 간다. 즉, 그녀의 의식 속에서 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차원의 것으로 전환되어 간다. 생령 사건 후 온나키미는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다. 스스로의 생령이 온나키치노미야(女一の宮)의 병상에 나타났다는 추문이 온나키미를 충격과 고뇌에 사로잡히게 한 것이다. 생령 사건 이후의 심경 중에서도 출가 결심의 의지가 처음으로 드러나 있는 다음의 성찰은 온나키치노미야의 증상이 호전되고 온나키미가 히로사와에 칩거한 이후의 것이다.

예전에 그렇게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비난하여 내 니시아마로 옮겼을 때 깊이 생각지 않고 머리를 잘라 버렸었다라면 그 순간이야 소란스러웠겠지만 아버지 누도께서도 하실 말씀을 잃으시고 그렇게 대접하셨을 것이고 아무 걱정없이 말끔히 이 속세에도 자연스레 정착하고 후세 또한 몹시도 믿음직스러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처신하는 법을 아는 것으로 끝났을 것을. 안타깝게도 오래도록 끌고 끌어 오다 내 몸도 이렇게저렇게 떠돌며, 극진하던 그 분(노관백(老關白, 필자)의 마음을 이토록 깊이 그리워 해 보지만 더욱 안타깝기만 할 뿐. 하물며 걱정도 괴로움도 끝없이 체험하고 흥한 소문까지 흘러며 늘 붕 뜬 채로만 지내 온 걸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한데, 거기에 **내세는 또 얼마나 어둡고도 어두운 노정일지를 생각하니 견디기 어려울 것만 같은데.** 마음도 괴롭기 그지없음은 내 삶도 길지 않을 듯하니 **이 기회에 이대로 세상을 등졌으면.**

昔、さばかりさべき人々にも疎まれ、言はれたてまつりて、移ろひしほどなど、あふなう髪などをも削ぎやつしてましかば、さしあたりしその折こそうたてあるやうなりとも、入道殿も言ふかひなく、そのかたにもてないたまひて、いかに思ふことなうさはやかに、この世もおのづから住み着き、後の世はたいかに頼もしく、人聞きも物思ひ知り顔にてはやみなましものを。口惜しく、さやうの筋を思ひも寄らず、たゆたゆしくてのみ長らへて、身もとごまかうぎまに漂はひて、**ねんごろなりし人の御心ざしを、こよなうあはれと思ひ出で偲べども、いと心盡くしなり。**まいて、憂きをもつらきをも盡きせず思ひ知り、疎ましげなる名をさへ流し添へ、つねに世にもありつかず、浮き漂ひてのみ過ぐすを思ふに、いみじく口惜しく、**まして後の世いかばかり暗きより暗きに入らむ道のたどりも堪へがたからむ。**心地もいと苦しくのみあるは、命も長らふまじげなるを、このついでに、やがて世を背きなばや。

(권5, pp.432~433, 밑줄 인용자)

여기서는 앞서의 두 장면과는 다른 성찰을 볼 수 있다. 즉, 앞의 경우처럼 현재와 대비하여 과거의 어느 시기를 그리워 하는 의식의 방법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의 히로사와에 얽힌 회상이 여기서는 언니 오오이키미와 오빠 사에몬노카미(左衛門督)의 비난을 받으며 히로사와에 몸을 숨겼던 그 시기에 차라리 출가하는 것이 좋았다는 후회의 감정으로 급변하고 있다. 「시간적인 유리의 감각을 견디지 못하여 와키를 읊는 식의 마음의 규제」는 더 이상 그녀를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불행을 회상하며 현재의 가혹한 현실을 헤쳐갈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어둡고도 어두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暗きより暗きに入らむ) (권5, p.433)」 후세에 대



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든다. 이 묘사 속에는 자연도 와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즈미시키후의 다음 와카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쇼쿠스님에게 읊어 보내기를  
어둡기만한 어둠의 길속으로 들어가버릴듯 저 멀리 비추어라 산자락의 달이여

性空上人のもとに、詠みて遣わしける  
暗きより暗き道にぞ入りぬべき遙かに照らせ山の端の月  
(『拾遺和歌集』卷第二十・哀傷・雅致女式部)

온나키미는 위의 장면에서 와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위 온나키미가 「와카를 거부」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계에서 온나키미의 심리 묘사가 이즈미시키후의 와카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곧 유사한 표현뿐만 아니라 사고 및 의식의 전개에 있어서 『요루노네자메』의 작가가 이즈미시키후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노가타리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양대 주요 사건 속에서 온나키미의 의식의 흐름의 방법은 이즈미시키후와의 관련이 명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앞서의 와카는 이즈미시키후의 초기 작으로 이름 높은 것이다. 이 와카를 보면 이즈미시키후의 작품과 『요루노네자메』의 온나키미의 의식의 흐름의 관련성은 한층 명확해진다. 와카 자체는 『훗케쿄(法華經)』 제3권·「케조유혼(化城喻品)」의 「어둡고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 오랜 시간 석가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從冥入於冥、永不聞仏名)」<sup>9)</sup>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즈미시키후의 와카 속에 확연히 드러나 있는 불교적 사고와 네자메노온나키미가 현존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차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출가에 대한 미련의 관련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스즈키히데오(鈴木日出男)씨에 의하면 이즈미시키후의 와카 속에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맴돌고 있는 것은 시키후 자신이 불교적인 관념과 사고를 가지고 각별하게 불교 귀의에 대한 욕구를 안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즈미시키후가 불교의 현세 부정적 논리를 현세에 대한 시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0)</sup>. 불교적인 시각을 통해 긍정도 부정도 없이 현실 세계를 상대화함으로써 보이지 않던 현실을 보는 것이며, 이는 이즈미시키후의 자기 발견과 표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즈미시키후의 비유나 연상법은 그녀의 내부 속에서 완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이즈미시키후에게 있어서 와카는 일종의 사고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작가가 와카의 표현성을 통해 본인의 내면의 심정을 통제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정을 이용하여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인듯 설득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와카에서 이즈미시키후가 번뇌의 어둠 속에서 또 어둠 속으로 마치 빛이 없는 세계 속에서 헤매어 다니는 듯한 자신의 운명이 만물의 심리를 꿰뚫는 불법의 힘으로 구체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그녀가 불법의 힘에 전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단지 어둠 속에서 구체되기만을 소망하는 자신의 존재를 불교적 표현으로 확인

9) 어둡고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 오랜 시간 석가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 (冥より冥に入りて永く仏の名を聞かざりしなり)(『法華經(中)』(坂本幸男・岩本裕譯注, 岩波書店, 1964, 제49쇄, 2001), p.20)

10) 鈴木日出男「和泉式部の敘情表現の方法」『古代和歌史論』(東京大學出版會, 1990), pp.706-728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즈미시키키부의 불교적인 관념은 네자메노온나키미의 경우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요루노네자메』의 온나키미의 사유법과 표현에서도 앞서의 와카를 비롯한 이즈미시키키부 식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요루노네자메』의 작자가 이처럼 이즈미시키키부의 와카와 그 창작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운명을 관조하는 표현과 방법을 이즈미시키키부의 와카와 그 창작법에 의존하는 경향은 다음 생령 사건 직후의 사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모두 합쳐 (마치 이즈미시키키부의 노래처럼) 무엇때문에 태어나 살아 온 이 몸인가 하고 외치고 싶을 지경이지만, 원래부터 마음이 너무나 어리석고 경솔하므로,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토록 험한 일들을 지나쳐 오면서 말할 수 없이 흉하고 듣기 싫은 말들까지도 듣게 되는구나.

昔より今にとり集めて、なれる我が身と言ひ顔にあれど、もとより、心のいとおろかに、淺うなりにければ、よく思ひも入れて、千々の憂き節をあまり思ひ過ぐし來て、言ひ知らず疎ましう、音聞きゆゆしき耳をさへ聞き添ふるかな。 (권 4, p.388, 밑줄 인용자)

위 장면에서 온나키미는 현재의 처지에 이르기까지 경험해 온 과거로부터의 고뇌와 우수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운명을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살아 온 몸(なれる我が身)」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즈미시키키부의 「무엇때문에 살아 온 이 몸인가 하염없구나 한탄스럽고도 한탄스러워라 (なにのためなれるわが身といひかほにやくとも物のなげかしきかな)」(『이즈미시키키부슈』(305, 밑줄 인용자))를 인용하는 표현이다. 온나키미는 불행한 인생을 한숨지으면서 무엇때문에 태어나 무엇때문에 살아 왔느냐고 한탄했던 시키키부의 와카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즈미시키키부의 경우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나키미의 한탄이 출가(出家)에 대한 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교적 통찰에서 비롯되는 귀의의 관념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렇듯 『요루노네자메』의 작자가 이즈미시키키부의 와카를 인용하면서 단지 그 표현을 인용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시키키부의 불교적 관조의 자세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유리혼(流離魂) 관계의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자기 성찰에 이어 「아무리 괴로운 때에도 내 부족함을 원망할지언정 누군가를 탓하는 내 영혼이 나를 떠나 헤매어 다닐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 깊은 곳의 마음이라고 해도 그럴 리가 없건만.(まことに、いみじうつらからむ節にも、身をこそ恨みめ、人をつらしと思ひあくがる魂は、心のほかの心といふとも、あべいことにもあらぬものを)」(권4, p.388, 밑줄 인용자)하고 생령을 부정하는 내면 서술이 계속되는 것이다. 온나키미는 이 서술 속에서 자신의 몸에서 유리된 영혼을 「몸을 떠난 영혼(あくがる魂)」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유리혼(遊離魂)을 「あくがる」라고 하는 동사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예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로쿠조미야스도코로(六條御息所)의 내면 서술 외에도 헤이안 중후기 와카에서 찾을 수 있다<sup>11)</sup>.

11) 『歌ことば歌枕大辭典』에 올라 있는 스즈키히로코(鈴木宏子)씨의 지적에 의하면 유리혼을 읊는 와카는 『코킨와카슈(古今和歌集)』나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에도 존재하나 이를 「あくがる」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하는 예는 小大君・馬内侍・和泉式部 등 헤이안 중기 가인의 와카에 보인다고 한다(久保田淳・馬場あき子編『歌ことば歌枕大辭典』(角川書店, 1999), pp.019-020)

내 한 몸을 한탄하는 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지만, 수심에 헤매이는 내 영혼은 그렇기도 할 것인가 하고 생각되는 일도 있었다.

身ひとつのうき嘆きよりほかに人をあしかねなど思ふ心もなけれど、もの思ひにあくがるる魂は、さもやあらむと思し知らるることもあり。  
(「葬」, pp.29-30)

예를 들어 이즈미시키키부의 「생각해 보면 연못의 반딧불도 내 몸을 떠나 헤매고 헤매이는 나의 혼인가 하네(もの思へば澤のほたるもわが身よりあくがれ出づるたまかとぞ見る)」(『고슈이와카슈(後拾遺和歌集)』 권제20·잡(雜)6·이즈미시키키부, 밑줄 인용자)<sup>12)</sup>는 명멸하는 반딧불을 나의 영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젠지모노가타리』의 로쿠조미야스도코로의 표현과 같은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요루노네자메』의 생령 사건의 묘사는 『젠지모노가타리』의 로쿠조미야스도코로의 유리혼 서술의 영향 외에 이즈미시키키부의 와카 창작 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요루노네자메』의 「네자메(寢覺)」라고 하는 키워드에 관한 선행 연구와도 큰 관련이 있다. 즉 가어 「네자메」는 역사적으로 의미의 변천 과정을 겪어 오면서 『이즈미시키키부조쿠슈(和泉式部續集)』의 「소치노미야반카군(帥宮挽歌群)」에 이르러 비로소 심각한 우수(物思い)라고 하는 뉘앙스를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인데, 『요루노네자메』나 『사고로모노가타리(狭衣物語)』의 주제어 「네자메」는 이즈미시키키부의 가어 「네자메」의 영향 하에 만들어진 독특한 키워드라고 하는 마스다시게오(増田繁夫)씨의 논의 바로 그것이다<sup>13)</sup>.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논해 온 것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요루노네자메』의 작자가 작품의 제재 및 주제어로서의 「네자메」를 이즈미시키키부적 뉘앙스를 반영하여 모노가타리의 주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작품 내부의 와카적 표현과의 관련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즈미시키키부에게 있어서 불교의 현세 부정적 논리는 그녀의 사상 그 자체이기보다는 현세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었다. 마찬가지로 『요루노네자메』의 온나키미에게 있어서의 불교의 현세 부정적 사고는 『젠지모노가타리』의 무라사키노우에가 출가를 기원하는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세(この世)」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되는 불교 귀의적 관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온나키미의 출가 염원은 자신을 단아 버리고 고립한 한 여성의 독특한 의식이었다. 이즈미시키키부의 와카와 그 창작법이 그녀의 확대되어 가는 심정을 통해 경험되지 않은 사실과 표현을 더욱 더 설득력 있게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요루노네자메』의 작자는 온나키미가 자신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의식을 통해 본인의 의식을 관망함으로써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이즈미시키키부의 와카적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요루노네자메』의 남녀 주인공의 마음의 격차는 이러한 표현과 방법을 통해 돌이킬 수 없이 커져 가게 되는 것이다. 작자는 산문 위주의 심리 묘사 속에서 선대 가인 이즈미시키키부의 와카적 방법을 의식의 흐름의 방

12) 『古今和歌集』의 인용은 小島憲之・新井榮藏校注『古今和歌集』(新日本古典文學大系五, 岩波書店, 1989)에 의한다.

13) 増田繁夫「歌語「寢覺」について」(『人文研究』(大阪市立大學)1990년1월), p.17

법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내면적 세계를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요루노네자메』의 온나키미가 심상을 자신의 내면에 비춤으로써 의식속에서 확장시켜 가는 현상은 「자폐자의 모노로그」<sup>14)</sup>로까지 불려진다. 이러한 온나키미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문학을 통해 자아의 존재의 의미를 탐색해 온 헤이안 여류 문학의 전통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온나키미는 흔히 『겐지모노가타리』의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의 뒤를 이어 정신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녀가 도달한 각성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녀의 독특한 의식의 흐름은 무라사키노우에뿐만 아니라 이즈미시키부와 같은 헤이안 시대의 다양한 여인의 자화상을 잇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요루노네자메』는 가어 「네자메」를 변형시켜 모노가타리의 주제어로 삼으면서 이즈미시키부라고 하는 선대 가인(歌人)의 문학의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여주인공상을 창조해 냈다고 할 수 있다. 시키부의 와카와 의식의 방법이 본 모노가타리의 산문적 전개 속에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촉진하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秋山虔(1964)「女流文學の精神と源流」『源氏物語の世界—その方法と達成—』(東京大學出版界、1964), 초출『解釋と鑑賞』(1963년1월), pp. 49-57
- 乾澄子(1992)「夜の寢覺—作中詠歌の行方—」『物語の方法—語りの意味論—』(世界思想社, 1992), pp. 104-111
- 河添房江(1986)「夜の寢覺と話型—貴種流離の行方—」『日本文學』(1986년 5월)
- 神田龍身(1982)「『夜の寢覺』論—自閉者のモノローグ—」(『文芸と批評』(1982년7월)), pp. 2-6
- 久保田淳・馬場あき子編(1999)『歌ことば歌枕大辭典』(角川書店、1999), pp.019-020
- 坂本幸男・岩本裕譯注『法華經(中)』岩波書店, 1964, 제49쇄, 2001, p.20
- 鈴木日出男(1990)「和泉式部の絳情表現の方法」『古代和歌史論』(東京大學出版會, 1990, pp.706-728
- 永井和子(1968)「題名をめぐって」『寢覺物語の研究』(笠間書院, 1968, 재판, 1990), p.97
- 増田繁夫(1990)「歌語「寢覺」について」『人文研究』(大阪市立大學)(1990년1월), p.17
- 三谷邦明(1987)「後期物語の方法<理念>と<語り>あるいは源氏物語の呪詛」『日本文學講座 4』大修館書店, 1987, pp.117-136

14) 神田龍身, 주2)의 논문, pp.2-6

## 要 旨

本論文の目的は『夜の寢覺』の敘述に散在している和泉式部の和歌の引用とその意味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る。『夜の寢覺』は心理描寫が優れている物語である。物語は心理敘述を極めるために和歌、特に贈答歌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方法をとらず、主に心内語と地の文に依存している。そのため、『夜の寢覺』は、小野小町から『伊勢集』、『蜻蛉日記』、『源氏物語』へと流れてきた平安文學の和歌的傳統の中で、その心理小説に近い散文性のせいで「和歌を拒否する」とまでいわれてきたわけである。

しかし、こうした散文的な内面描寫の中に『夜の寢覺』だけの和歌的な傳統は守られていた。和歌による贈答や和歌じたいは多少少ないものの、物語の中には歌人和泉式部の和歌が意図的に引用されていたわけである。しかも、女君の意識の展開は式部の和歌創作の方法と極めて類似していた。とりわけ、『和泉式部集』の中で『和漢朗詠集』の「無常」に載っている「觀身論命歌群」は女君の内面の展開と大変關連深い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つまり、女君は我が憂き身の歴史をたどり、現在の我が身の不幸の程を過去のものとは比べることによって、現在は過去のどの時期よりも不幸であると認識する傾向がある。そういう傾向は物語の山場である二つの事件、つまり、帝闖入事件と生靈事件の後、特に著しいのだが、これは女君が厳しい現實の狀況を直視し、それを乗り越えていく上で、非常に大切な意識の方法であった。ただし、このような女君の意識の方法は、生靈事件の後、深化の過程を経ることによって、不幸であった過去の時期を回想するよりは、和泉式部の和歌にも見えるような仏教的な思考の方へと轉じていく。とはいえ、それは和泉式部の場合と同じく、仏教の現世否定的な論理が現世を見つめる一つの價值觀として働いているからであって、女君自身現世に對する執着そのものから自由であるからだとは言いきれないわけである。

すなわち、『夜の寢覺』の女君が過去と現在の狀況を對比して考えることや出家に執着する現世否定的な意識の世界を繰り広げていたのは、和泉式部からの影響が明らかであった。和泉式部の和歌とその創作が、自分の廣がってゆく心情を通して未だに經驗したことのないことをさらに説得力をもって言い表していくものであったように、『夜の寢覺』の作者は女君が自分を見つめる自らの意識を眺めることによって、その意識の世界をさらに廣げる方法として式部の和歌の方法を用いたと言えよう。作者は歌語「寢覺」の意味を変容させて物語の主題語にしながら、歌人和泉式部の文學の方法を導入して物語の新しい女主人公像を創造し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 : 와카 거부, 산문성, 의식의 흐름, 이즈미시키키부, 시간적인 유리의 감각, 현세 부정

투 고 : 2004. 8. 31  
1차 심사 : 2004. 9. 11  
2차 심사 : 2004. 10. 2

住 所 : (480-778)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신도아파트 602-103

電 話 : 031-823-7267

E-mail : jaeinshin@yahoo.co.kr